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7 pp. 2964-2970, 2012

http://dx.doi.org/10.5762/KAIS.2012.13.7.2964

고교생들의 대학진학선택에 대한 특성

노효련[1*]
[1]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Characteristics of Highschool Students about Choosing a University

Hyo-Lyun Roh[1*]
[1]**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선택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11년 신입생 750명이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다. 지원한 대학의 수는 3~4개가 가장 많았으며, 고 3 시기에 대학과 전공을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과에 비중을 두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학선택 유형에서는 가족형이 가장 많았다. 학과 선택시의 기준은 적성고려, 취업전망 순이었고, 입학하는 학과에 대해 사전 정보와 지식을 갖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고 있었다. 고교교사/학교와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을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TV/라디오,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적었다. 따라서, 진학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과 전공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이용한 홍보 전략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highschool students in selecting a career. The subject included 750 students from, who became a university student in 2011. The most of number of students answered that they applied to 3 to 4 universities and they decided their major and university on their last year of high school. Many placed weight on the major rather than the school. Among types of selecting career, family-type received the most voted. In selecting a major, the most answered that they consider their aptitude and then career opportunity. Most students said they were equipped with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he major they applied for beforehand. In selecting a university, many mainly applied for the ones with the highest chance of getting accepted. Many said they learned of the university from their high school/teacher or through the internet. A very few answered that they learned of the university through media such as TV/radio and newspaper. Therefore, appropriate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ones wh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students in selecting a career, family. Also, universities need to develop a promotion strategy that utilizes high schools as well as the internet and smartsphones.

Key Words : Major, Selecting career, University student.

1. 서론

대학과 전공의 선택은 초, 중등교육의 결과이며 향후 사회생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1]. 다수의 청년들에게 사실상의 심각한 최초의 진로선택은 대학과 전공 선택의 문제이며, 대학 진학률이 79%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이 한 인간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2,3].

그러나 대학진학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대부분 자기주도적이지 못하고 부모, 교사 또는 친구의 도움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진로 등을

*Correspoding Author : Hyo-Lyun Roh
Tel: +82-10-2456-3468 email: withtry@kangwon.ac.kr
접수일 12년 04월 24일 수정일(1차 12년 05월 21일, 2차 12년 06월 08일) 게재확정일 12년 07월 12일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나 경험을 갖지 못하여 자신의 성격, 적성, 흥미, 능력 등과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4]. 또한, 학교나 학과의 선택이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 능력, 관심보다는 점수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대학에서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쪽에서 편향된 간판주의, 학력주의에 집착하여 선발하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5].

대학시기인 19세에서 2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3]. 그러나 입시 설명회, 고교방문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의 통로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제한적이며 일부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여 진학선택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 시기이며,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인[2] 대학시기가 가지는 학문적, 직업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전공과 다른 취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자녀의 진학 결정권에 부모가 좌우하고 자기탐색의 결여 등에 따른 자신의 이해 부족과 정보와 인식의 결여로 인한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적절한 진학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한편, 대학전공 선택에서의 자율성이 높다고 인식한 학생일수록 전공 만족도, 흥미, 적성과의 부합 등 전공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신의 전공이 장래성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입학동기가 순수하고, 자신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하며, 진로를 위해 선택한 경우가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6,7,8]. 따라서, 자기 주도적인 대학진학 결정은 대학생활의 만족 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학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대학진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세 개의 단위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단위의 대학교에서 1개 캠퍼스의 2011학년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개 학부, 16개 학과의 2011년 신입생 754명으로 하였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공학대학이 161명, 인문사회 대학이 206명, 보건대학이 383명이었다. 총 응답자는 750명으로 남학생 348명(46.4%), 여학생 402명(53.6%)으로 여학생 비율이 다소 높았다. 평균 연령은 20.3±2.4세 이었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 n(%)

대학	남	여	연령(세)	전체
공학대학	132(17.6)	29(3.9)	20.5±2.7	161(21.5)
인문사회대학	102(13.6)	104(13.9)	20.4±3.5	206(27.5)
보건대학	114(15.2)	269(35.9)	20.1±1.1	383(51.1)
전체	348(46.4)	402(53.6)	20.3±2.4	750(100)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정원미와 이재신[9]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임언[2]의 연구를 참조하여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다. 최종 제작된 설문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의 α 값을 사용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4문항, 대학과 관련된 문항 6개, 학과와 관련된 문항 5개로 구성하였다. 이 중 일부 문항은 다중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학에 관한 내용은 대학 지원했던 대학수, 본 대학 지원동기, 대학인지 계기, 대학 지원결정시기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학과선택에 관한 내용은 학과 선택시기, 학과 선택시 영향을 준 사람, 학과 지원동기, 학과 인지도에 관한 질문이었다[표 2].

[표 2] 진로 선택 설문지 문항
[Table 2] Career choice questionnaire items

	문항 내용	신뢰도
대학 지원	본 교 지원동기	.784
	지원한 대학 수	
	본 교를 선택한 이유	
	선택시 학과와 학교 중 비중이 높은 것	
	본 교를 알게 된 계기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는 시기	
학과 지원	학과 선택 시기	.843
	학과 선택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	
	학과를 지원한 동기	
	입학하는 학과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	

2.3 연구 절차

자료수집은 2011년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석하고자 한 경우에만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학과 사무실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배부된 후 수거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 누락이 많은 4부를 제외하고 750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호화한 후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언[2]의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선택 유형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진학선택 유형을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형”은 진학결정시 영향을 준 사람이 부모님, 또는 형제나 친인척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며, “학교형”은 학교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경우, “학원형”은 학원선생님 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며, “독립형”은 본인과 선배 또는 친구를 선택한 경우이다[표 3].

[표 3] 진학선택 유형
[Table 3] Type of carrer choices

유형	선택 기준
가정형	부모님, 형제 또는 친인척
학교형	학교 선생님
학원형	학원 선생님
독립형	친구/선후배, 본인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과 학과 및 대학 선택에 관한 내용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성별과 대학, 학과와 진학선택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인 유의수준은 $p<.05$로 하여 통계적인 결정을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학결정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3.1 지원했던 대학교 수

본 대학교를 포함하여 몇 곳의 대학교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4개(52.3%), 3개(35.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인 유의도가 나타났다(x^2=30.938, $p<0.01$). 따라서 전체 신입생들의 대부분은 3~4개의 대학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에 따라 지원한 대학교의 수가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보건대학은 4개 이상을 지원한 비율이 31.7% 로 높았다[표 4].

[표 4] 지원했던 대학교 수
[Table] Supported the University %(n)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	
공학대학	0.8 (6)	2.4 (18)	9.2 (69)	8.9 (67)	21.5 (161)	x^2=30.98 $p<0.01$
인문사회대학	1.5 (11)	2.7 (20)	11.6 (87)	11.7 (88)	27.5 (206)	
보건대학	1.5 (11)	3.3 (25)	14.6 (109)	31.7 (238)	51.1 (383)	
전체	3.7 (28)	8.4(63)	35.4 (265)	52.3 (392)	100 (750)	

3.2 본 대학교를 알게 된 계기

본 대학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고교교사/학교(28.1%), 인터넷(27.5%), 순으로 나타났다. 공학대학과 인문사회대학에서는 인터넷, 고교교사/학교 순으로 나타났고, 보건대학에서는 인터넷, 고교교사/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의 없었다[표 5].

[표 5] 본 대학교를 알게 된 계기
[Table 5] The university how did you know n(%)

	고교교사/학교	가족	친구/선배	TV/라디오	진학서적	신문	대학간행물	학원	인터넷	계
공학대학	52 (6.9)	26 (3.5)	19 (11.8)	0(0)	14 (1.9)	0(0)	2 (0.3)	3 (0.4)	45 (6.0)	161 (21.5)
인문사회대학	56 (7.5)	32 (4.3)	30 (4.0)	1 (0.1)	38 (5.1)	0 (0)	3 (0.4)	2 (0.3)	44 (5.9)	206 (27.5)
보건대학	103 (13.7)	52 (6.9)	40 (5.3)	2 (0.3)	51 (6.8)	1 (0.1)	10 (1.3)	7 (0.9)	117 (15.6)	383 (51.1)
전체	211 (28.1)	110 (14.7)	89 (11.9)	3 (0.4)	103 (13.7)	1 (0.1)	15 (2.0)	1.6 (12)	206 (27.5)	750 (100)

[표 6] 본교 지원동기
[Table 6] The university support motive n(%)

	취직전망	합격가능성	배우고 싶어서	주위권유	근거리	타대학 불합격	부모님 의사	계
공학대학	36 (4.8)	44 (5.9)	43 (5.7)	10 (1.3)	10 (1.3)	10 (1.3)	8 (1.1)	161 (21.5)
인문사회대학	17 (2.5)	72 (9.6)	50 (6.7)	24 (3.2)	4 (0.5)	19 (2.5)	20 (2.7)	206 (27.5)
보건대학	119 (15.9)	97 (13.0)	89 (11.9)	34 (4.5)	6 (0.8)	15 (12.0)	22 (2.9)	383 (51.1)
전체	172 (23.0)	213 (28.4)	182 (24.3)	18 (9.1)	20 (2.7)	44 (5.9)	50 (6.7)	750 (100)

3.3 본교 지원 동기

본 대학의 캠퍼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 신입생 중에서 성적을 고려해서(28.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배우고 싶어서(24.5%)와 취직전망(22.6%) 순이었다. 공학대학에서는 취직전망(22.6%), 인문사회과학 대학에서는 배우고 싶어서(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대학에서는 성적고려(28.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6].

3.4 진로 선택시 학과와 학교의 비중

진로를 선택할 때 학과와 학교 중 어디를 더 고려했느냐는 질문에서는 학과에 비중을 두었다가 전체 신입생의 77.3%로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x^2=30.54, p<0.01), 단과대학에 따라 진학시 학과와 학교 중 비중을 두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과에 비중을 둔 경우가 보건대학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학 결정에 있어서 학교보다 전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진학시 학교와 학과의 비중
[Table 7] The proportion of the school and the department of career choices n(%)

	학교	학과	계	
공학계열	40 (5.3)	121 (16.1)	161 (21.5)	x^2=30.54 p<0.01
인문사회 대학	72 (9.6)	134 (17.9)	206 (27.5)	
보건대학	58 (7.7)	325 (43.3)	383 (51.1)	
전체	170 (22.7)	580 (77.3)	750 (100)	

3.5 대학 및 학과 결정시기

대학 결정시기는 고 3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서 접수시기(22.3%), 수능발표 이후(17.8%)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결정시기는 고 3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1, 2(18.5%), 원서접수 직전(13.6%), 수능발표 이후(10.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 3시기에 진로 선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대학 및 학과 결정시기
[Table 8] Decison period of department and university 단위: n(%)

	고 1, 2	고 3	수능발표 이후	진학 상담시	원서접수직전	기타	합계
대학결정시기	60(8.0)	370(49.3)	133(17.7)	15(2.0)	164(21.9)	8(1.0)	750(100)
학과결정시기	139(18.6)	346(46.2)	79(10.5)	72(9.6)	101(13.6)	13(1.6)	750(100)

[표 9]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Table 9] Prior knowledge on department 단위: n(%)

	잘 알고 있다	약간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공학대학	9.3(15)	13.6(102)	5.3(40)	0.5(4)	21.5(161)	x^2=16.93 p<0.01
인문사회대학	3.7(28)	19.1(143)	4.0(33)	0.7(5)	27.5(206)	
보건대학	7.5(56)	36.7(275)	6.4(48)	0.5(4)	51.1(383)	
전체	13.2(99)	69.3(520)	15.7(118)	1.7(13)	750(100)	

3.6 입학하는 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입학하는 학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전체 캠퍼스에서는 약간 알고 있다(69.3%), 잘 알고 있다(13.2%)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대학에서는 약간 알고 있다 와 잘 알고 있다 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x^2=16.93, p<0.01).

따라서, 학과에 대한 인지도 정도가 각 단과대학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자신이 진학하는 학과에 대해 일정 정도의 사전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3.7. 진학선택유형

진학선택 유형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에서는 가족형과 학교형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여학생에서는 가족형, 독립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학생들에서는 가족형이 가장 많았고 학교형, 독립형, 학원형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건대학에서 가족형이 가장 많았다.

지원동기와 진학선택 유형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족형은 적성고려와 취업전망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형에서는 적성고려, 학원형에서는 취업전망, 독립형에서는 적성고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0].

4. 고 찰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진학선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몇 곳의 대학교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4개의 대학을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성문[10]의 연구에서는 3개의 대학을 지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4개를 지원한 경우는 가장 적게 나타나서 본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학 입학전형 체제에서는 수시 1, 2차와 정시에 지원할 수 있고, 복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곳의 지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학을 선택할 때 학과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77.3%)이어서, 진학 결정에 있어서 학교보다 전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자신이 진학하는 학과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고 3시기에 진학에 대한 결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윤[11]의 연구에서도 전공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약간 알고 있다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빨라지고 있고, 신입생 확보를 위한 대학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제주대학교[4]에서는 학부(과) 선택시기가 입학원서 접수 시간 중이 가장 높다고 하여서 본 연구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10] 진학선택 유형
[Table 10] Type of career choices

단위: n(%)

		가족형	학교형	학원형	독립형	전체	
성별	남학생	126(16.8)	125(16.7)	12(1.6)	85(11.3)	348(46.5)	x^2=11.89 p<0.01
	여학생	165(22.0)	101(13.5)	10(1.3)	125(16.7)	401(53.5)	
단과 대학별	공학대학	56(7.5)	59(7.9)	5(0.7)	41(5.5)	21.5(161)	x^2=8.40 p>0.05
	인문사회대학	73(9.7)	62(8.3)	4(0.5)	66(8.8)	27.4(205)	
	보건대학	162(21.6)	105(14.0)	13(1.7)	103(13.8)	51.1(383)	
	전체	291(38.9)	226(30.2)	22(2.9)	210(28.0)	749(100)	
지원 동기	적성고려	106(14.2)	82(11.0)	7(0.9)	92(12.3)	287(38.4)	x^2=68.74 p<0.01
	선생님 권유	7(0.9)	33(4.4)	3(0.4)	10(1.3)	53(7.1)	
	부모/ 가족권유	52(7.0)	21(2.8)	0(0)	8(1.1)	81(10.8)	
	취업전망	105(14.1)	68(9.1)	8(1.1)	70(9.4)	251(33.6)	
	합격가능성	18(2.4)	19(2.5)	4(0.5)	24(3.2)	65(8.7)	
	선배/친구권유	2(0.3)	3(0.4)	0(0)	5(0.7)	10(1.3)	
	전체	290(38.8)	226(30.3)	22(2.9)	209(28.0)	747(100)	

본 연구에서 진학선택 유형은 가족형이 가장 많았고 학교형, 독립형, 학원형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4]에서는 가족 및 친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고, 임언[2]의 연구에서도 가족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정윤경과 임언[1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이며, 학교선생님, 친구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학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가족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본 대학교를 선택한 동기에 대한 서는 전체 신입생 중에서 합격 가능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공학대학에서는 취직전망, 인문사회과학 대학에서는 배우고 싶어서, 보건대학에서는 성적고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나서 인문사회과학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취향을 고려한 소신 진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성여대에서는 학교 결정시 고려한 요인은 합격가능성(75.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안영진[14]은 대학을 지원한 동기로는 합격가능성이었고, 김혜은[15]의 연구에서는 취업가능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는데 주요 요인은 합격 가능성과 취업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영진[14]은 지난 5년간 취업 가능성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대학의 발전 가능성이나 우수한 교육환경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하여 최근의 취업난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취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학교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터넷, 고교교사/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TV/라디오, 신문과 같은 종래의 대중 매체을 통하여 알게 된 경우는 아주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체육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수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는 고교생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폰 등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대한 정보를 학교나 고교교사를 통해 알게 되나, 대학진학시 결정은 주로 고 3시기에 가족들에게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합격가능성과 취업과 같은 실제적인 부분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진학정보를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다양하고 정확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들에게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하여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터넷이나 모바일 폰의 메일링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대학진학 선택 형태에 따른 대학생활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 취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Hahn KD, "Subjects interests and self-achievement in high schools and the choice do Economics, Business majors in colleges",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15, No 1, pp. 75-87, 2008.

[2] Lim E. “Differences among Groups Classified Based on Social Supporters in Choosing College Maj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3, pp. 63-84, 2008.

[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University entrance rate. http://kostat.go.kr

[4] Jeju university, Actual condition survey on freshman of the year 2008, Jeju university, 2008.

[5] Son CG. & Kim YT. "The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self-concepts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26, pp. 21-42, 2005.

[6] Cho WS,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ccordance with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Daej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7] Lee GH, & Kwon JM,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ecting Majors and Their Achievement in College Life", Kung hee university journal of research education problem, Vol. 2, pp. 95-112, 1996.

[8] Lim MH, "A Study on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e Freshmen of Major and Occupatio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6, No. 4, pp. 277-284, 2006.

[9] Jeong, WM & Lee, JS, "Study on the Criteria for Selection and Life of College by Amo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in the University and College" KSOT Vol. 9, No. 1, 2001 55-68.

[10] Kim. SM, "A study on the admission procedure to the physical education-related courses in the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3.

[11] Kang KY, A study on the living status 2006, Chongshin university, 2007.

[12] Jung YK & Lim E, "Parents perption and

expectation on aptitude test" The Journal of Carrer Education Research, Vol. 16, No. 1, pp. 123-135, 2003.

[13] Jung SW, Jung HN, Kim NJ, "The characteristics of 2007 duksung women's university freshmen". Rearsh of students life, Vol. 23, pp. 1-34. 2007.

[14] Ahn YJ.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matriculates and its spatial attraction"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7, No 3, pp. 481-501, 2004.

[15] Kim HE, "A study on the living status and consciousness of freshmen on year 2009". Study on the living of student on Yong In University, Vol.17. pp. 113-165, 2010.

노 효 련(Hyo-Lyun Ro) **[정회원]**

- 2001년 8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재활과학과 (이학석사)
- 2006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영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치료, 신경계치료, 운동치료